

UC Berkeley Summer Session 2013 참가 후기

20100136 화학공학과 박윤상

안녕하세요 2013년도 UC Berkeley Summer Session을 참가하고 온 화학공학과 10학번 박윤상입니다. 저와 같이 Summer Session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후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기참가자들의 후기를 보고 준비했고, 후기만 보고선 항상 불안한 감이 있어 후기에 없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써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 후기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가, 뭘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싸게 준비해서 갈 수 있는가 이런 저렴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미국의 의식주 생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느껴보세요 ㅎㅎ.

1) Summer Session 등록

먼저 학교에서 하는 summer session을 신청해야 하겠죠. 하지만 UC Berkeley에 가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든 과정(수강신청, 기숙사, 비행기표, 비자 등)을 자기가 스스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summer session도 마찬가지로요. 저도 처음에 많이 막막해서 다른 후기들을 봤지만 사실 자신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없어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점은 어떻게든 가긴 가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국제협력팀에 자주 전화해서 물어보고 버클리의 summer session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사이트가 나와 있는 후기가 하나도 없어서 답답한 점이 많았습니다.(<http://summer.berkeley.edu/>).

사이트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International Students에 들어가서 international student check list를 확인하는 것입니다(<http://summer.berkeley.edu/international/international-checklist>). 여기에 등록 전, 등록 후, 학교에 오기 전, 학교에 와서 등 정확한 정보가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 list를 계속 읽어보고, 관련된 링크도 저 list에 하이퍼링크로 다 있으니 수강 관련은 저 사이트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준비하세요. 대략 순서대로 말해 드리자면, 학교에서 영어인증제로 가는 경우 Certificate form을 학교로부터 받아 준비해 놓고(전화해보세요 달라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과목을 찾아놓고, 비자(ESTA)를 발급받고 이제 Summer Session registration을 하면 됩니다. 매년 사이트의 형식이 바뀌는 것 같아 자세하게 무엇을 클릭하라고는 적어놓을 수 없지만 저 사이트에서 수강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아마 어딘가에 START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미국 사이트는 생각보다 버튼 같은 게 구석진 곳에 있어요 자주 들락날락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결제를 하면 며칠 뒤 수강과 관련된 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Summer session을 신청하면 CalNet이라는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아이디로 Berkeley의 각종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ysummer : <http://mysummer.berkeley.edu/> 버클리 여름학기 수강생들 위한 사이트. 수강신청해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Bearfacts : <https://bearfacts.berkeley.edu/bearfacts/> 나중에 성적 볼 수 있는 사이트. 성적만 확인

가능하고 공인 성적표는 학교로 옵니다.

Telebears : <http://telebears.berkeley.edu/> 이것도 CalNet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강한 과목을 볼 수 있고 class drop, add, switch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사이트만 잘 들락날락 하시면 수강신청은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버클리 수강 과목은 수업 시작 날짜에 따라 A, B, C, D, E course로 나뉘는데 아마 우리 학교는 D, E만 가능할 것입니다(방학 끝나고 신청하는 시기상). 일찍 수강신청을 할수록 원하는 과목을 고를 수 있으니 잘 생각하고 일찍 신청하세요. 그리고 같은 학점수라면 개강 전, 심지어 개강 후 1주일 이내까지 언제든지 추가비용 없이 바꿀 수 있으니 일단 신청해 놓고 나중에 바꾸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더 많은 학점수를 신청하더라도 차액만큼의 돈만 내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과목에 해당하는 우리학교 학부의 담당교수님(인문사회학부의 경우 교육위원 교수님 고정휴 교수님)께 과목을 수강해 오면 인정해 주실 수 있냐고 메일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 뵙길 바랍니다.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2) 비자

5학점 이하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J~ I~ 이런거 필요없이 ESTA 전자비자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네*버에서 ESTA 검색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네이버에서 제일 검색창 제일 위에 뜨는 ESTA 사이트는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 한국의 대행업체 사이트입니다. ESTA 공식 사이트(<https://esta.cbp.dhs.gov/esta/>) 에서도 영어만 읽을 줄 알면 15000원에 온라인으로 바로 결제되고 발급됩니다. 근데 똑같이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데 대행업체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성행합니다. 한글로 번역만 해놓고 온라인으로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30000원이나 떼어먹어 45000원에 결제하는 x같은 사이트가 네*버에 잔뜩 나오니 꼭 저 사이트에서 15000원에 결제하시길 바랍니다. 결제하고 출력해서 여권이랑 같이 들고 다니면 되는데 별로 보여줄 일 없어요

3) 비행기표

검색은 항상 구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모집으로 들어가서 비행기표를 매우 늦게 샀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매우 싸게 샀습니다(왕복 109만원. 다른 아이들은 보통 130만원 정도 줬더군요). 그렇지만 일찍 사시면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저는 이만큼 싼 대신에 일본을 거의 12시간 이상 경유해서 가는 JAL 항공을 탔습니다. 갈 때 올 때 둘 다 12시간 이상 경유를 했습니다. 그럼 엄청 힘들지 않냐고요? 아니요. 일단 출국 때는, 아침에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하네다공항(일본 경유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도쿄에는 하네다공항 나리타공항 두 개가 있는데, 매우 싼 일본 경유 티켓 중에 간혹 나리타로 입국하여 하네다까지 직접 짐을 들고 이동하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불편하니 일본 경유 공항 두 개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일본 시내에 나가실 생각

이라면 무조건 하네다를 가세요. 나리타 공항은 시내에서 매우 멀어 시내 관광이 불가능합니다)에 도착하여 일본에서 근무하시는 졸업생 선배님을 만나 요코하마에서 매우 즐거운 시간을 하루 종일 보내다가 맥주 한잔 하고 밤11시쯤 다시 하네다 공항에 가서 비행기에서 쿨쿨 잤습니다. 저처럼 아는 지인분을 만나도 좋고, 하네다 공항에서는 도쿄까지도 30분 밖에 걸리지 않으니 하루동안 도쿄 관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무비자 경유가 가능하니 엔화 3~4만원 정도만 들고 가서 하루정도 놀다가 갔습니다 저는. 그리고 입국 시, 저는 하네다 공항에 밤11시쯤 도착했는데 JAL기를 타고 하네다 공항에 밤에 길게 경유하는 사람의 경우에 무료로 하네다 공항에서 무료 셔틀로 10분 거리에 호텔을 하나 잡아줍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돌아오기 전에 일본 호텔에서 잘 씻고 가족이랑 통화도 하면서 푹 자고 아침 8시에 비행기 타고 한국 갔습니다. 이렇듯 경유시간이 길어도 충분히 잘 놀다 갈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경유 길게 해서 싸게 비행기표 사세요!(단, 경유지가 무비자 협정이 맺어져서 비자 없이 하루 정도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표는 구글에 검색하면 저가항공 예매 대행업체들이 많이 나오니 그 중에 적당히 믿음직한 사이트에 가서 사면 됩니다. 저는 에어비자 라는 대행업체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4) 여행자보험

Summer Session의 경우 UC Berkeley의 학생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보통 한달, 45일 정도 보험 들면 한 8만원 정도 나옵니다. 일단 학교에서 요구하는 질병, 상해 각각 5000불 이상 보장되는 보험을 들어야 하고요, 저는 학교 여행사에서 LIG보험을 들었습니다. Summer session 수업 기간 동안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을 들면 됩니다(ESTA비자는 여행자 신분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해외 유학생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발바닥이 골절된 적이 있어서TTTT. 미국은 학교병원도 엑스레이 하나도 겁나 비쌉니다. 한국에서 9천원인거 5만원 해요 그리고 의사 얼굴만 봐도 3만원 들어요... 언제든지 다칠 수가 있으니 보험 잘 이용하세요.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서류랑 진단서 잘 보관해서 한국에 와서 직접 가서 보험 신청만 하면 보통 하루나 이틀 만에 입금 됩니다.

5) 기숙사

사실 Summer Session에서 가장 큰 문제가 기숙사 구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버클리 주변에서 sublet하여 살았는데, 3층정도 되는 큰 집에서 한 10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저는 집도 매우 크고 가격도 저렴하고, 미국인들과 방도 같이 쓰고 요리도 하면서 재미 있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sublet이 버클리의 기숙사보다 훨씬 싸니까 제일 좋죠 그리고 미국인도 많으니..(버클리는 재학생들이 여름방학때 기숙사를 나와야 해요 우리학교알씨처럼ㅋ 그래서 여름학기 듣는 버클리 학생은 전부다 sublet해서 삽니다.) <http://sfbay.craigslist.org/> 모든 sublet은 거의 다 이 사이트에서 합니다. 혹시 sublet을 할 거면 지도에서 버클리 북쪽, 그리고 Telegraph ave.에 있는 집은 쓰지 마세요 되도록. 위험합니다. 가끔 막 가이드북에 Telegraph ave.가 대학의 중심지, 대학로 이렇

다고 하는데 물론 맞긴 하지만 살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시끄러워요. 버클리가 히피문화(일종의 평화주의자인데 돈없이 사는 사람들)의 발상지라 길거리에 자는 사람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이 매우 많아요. 특히 Telegraph에. 해꼬지는 하지 않지만(가끔 욕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입국 첫날에 쌍욕듣고 거의 가지 않았어요) 무서우니 사는 곳은 되도록 Dwight way와 Shattuck ave. 가 그리는 직사각형 안에 있는 집들만 클릭해서 보고 적혀 있는 주소로 이메일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선금 많이 요구하면 사기일 수도 있으니 도착해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세요. 학교가 매우 커서 한 2~3블록 떨어져 있어 보여도 매우 멀기 때문에 되도록 학교, 그리고 수업하는 장소의 건물과 가까운 집에 사세요. College ave나 Bancroft way에 있는 집을 추천해요.

그치만 sublet의 경우 사실 사람 하기 나름이지만 유학생이 아니라 학교 재학생들이 많아서 보통 먼저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걸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I-house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타 대학에서 온 한국인 유학생들은 거의 다 I-house에 살고, 다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더 친해지기 쉬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방학 같은 경우 I-house 신청 경쟁이 수강신청보다 빠르기 때문에 아이하우스에 살 거라면 빨리 신청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http://ihouse.berkeley.edu/> 여기서 아이하우스를 신청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한 10pt정도 되는 아주 작은 글씨로 Apply 가 써져 있어요. 이렇게 미국 사이트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버튼은 다 크기가 작으니깐 TT 잘 찾는 능력을 기르시길..

아니면 그냥 residential house에 살 수도 있어요. 여기도 늦게 하면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셋 중에 제일 비싸긴 하지만 아이하우스처럼 방학 때는 유학생(거의 다 중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친해지기 위해 살 수도 있겠죠. 아이하우스와 Residential 기숙사는 둘 다 방값에 식권이 포함되어 있어 미국식 식사를 질릴 때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제일 앞서 말한 summer.berkeley.edu의 체크리스트에서 housing information에서 연결 됩니다.

거의 sublet, residential, i-house 세 개 정도의 생활이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으니 잘 생각하고 고르시길 바랍니다. Ihouse에 사실거면 수강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먼저 핸드폰은, 10불 해외유심칩 사서 끼우면 됩니다. 30일 기한이 있으니 되도록 출국 거의 직전에 사시거나 현지 가서 사시길 바랍니다. H2O 유심칩 사서 다 쓰면 충전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2owirelessnow.com/pageControl.php?page=index>

그리고 우리V체크카드 같은거 VISA나 MASTER 되게 바꿔서 가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신용카드가 더 편하긴 합니다 돈계산할 때... 체크카드는 결제하고 돈이 한 2주 있다가 결제되서 돈계산할 때 헛갈려요. 현금은 만약에 씨티뱅크카드가 있으면 적당히(한 2000불정도) 뽑아가시면 충분히 사실

수 있구요, 요새 씨티뱅크카드가 또 —.— 예전에는 무료로 발급됐는데 지금은 신규가입 시 수수료가 무려 3만원이에요..... 씨티뱅크가 출금 시 수수료가 금액 관계없이 1불밖에 들지 않고 세븐 일레븐 등 아무데서나 뽑기 쉬워서 좋긴 해도 3만원은 너무 비싸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혹시 씨티뱅크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비밀번호 바뀌서 빌려가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우리학교 학생들은 거의 다 우리은행에서 돈 보낼 때 수수료 안들잖아요. 씨티뱅크 카드 빌려가서 우리은행에서 씨티뱅크로 돈 온라인입금해서 씨티뱅크 인출기에서 찾아서 쓰는게 좋아요. 우리나라 비자카드는 해외출금 시 출금금액에 퍼센트대로 돈이 붙고 기본이 3000원? 그리고 잔액확인만 해도 돈이 붙어요 되도록 씨티뱅크 카드 구해서 가시거나,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현금을 많이 챙겨가시던가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비자카드를 쓰던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제학생증 꼭 만드시고요. 대부분 우리은행에서 ISE 카드 만드시던데, 우리학교 국제협력팀에서 ISIC 카드를 만원 내고 발급해 줍니다. 둘 다 비슷한 혜택이지만, 음 ISIC 카드 쓰시면 기차 AMTRAK이 할인이 쉽고 ISE는 저렴한 장거리버스인 greyhound에서 할인이 되는데, greyhound는 이 할인 말고도 그냥 두 명 같이 타면 커플할인(x) Companion 할인이 되고 중복적용이 안되므로 그러니까 ISIC 카드 만들어서 가세요 그냥 ㅎㅎ ISE는 할인받을라면 미국에서 영수증 챙겨서 소포 보내고 해야되서 귀찮아요.

6) 학교 생활

다른 것들(음식 등)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경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ㅎㅎ 가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사귀어 사람들이랑 가세요 여기서 잔뜩 알아서 가봤자.. 저랑 입맛 안 맞는 음식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참고로 제 입맛은 완전 한국식 아저씨 입맛입니다.

일단 아셔야 할 게, 미국은 미국식이 없어요 거의. 미국음식은 햄버거 피자 정도? Melting pot이라고들 하죠 미국은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 대부분 패스트푸드 빵 아니면 외국음식(이탈리아, 베트남, 중국 등)입니다. 저는 빵이 입맛이 안 맞아서 거의 다 베트남, 중국, 한식집입니다.

1. Pho : 쌀국수집입니다. Telegraph ave.를 걸어 내려가다보면 나와요. 버클리 유학생들이 술 먹고 해장할 때 먹는 집이라고 합니다. 쌀국수인데 완전.... 아 대박 맛있음 한국이랑 비교가 안되요

2. 베어라면 : 한국식 분식집인데, 정말 맛있습니디. 한국음식 먹고싶을 때 가세요. Durant ave에 있습니다. 김치볶음밥 삼겹김치덮밥 라면 짬뽕라면 다 맛있어요

3. 김치가든: 여기도 한국식 집인데, 떡만두국은 맛있어요. 다른 것도 맛있는데 냉면은 먹지 마세요.

나머지는 그냥 다 쪽 쓸게요. 봉고버거(맛있는 햄버거), 빌드(직접토핑골라만들어먹는비싼피자), 치즈보드(피자), ICI(수제아이스크림), cream(매우단아이스크림+쿠키), Gypsy(괜찮은 이탈리아음식점)

이정도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사실 아시아음식 말고는 별로 입맛이 안 맞아서 거의 한식집을 가거나 집에서 밥해먹었습니다. 아, 아이하우스나 레지덴탈 기숙사는 학식이 제공되는 대신 요리 하기가 힘듭니다. 요리 하시려면 sublet 하세요.

날씨 : 음. 덥고 추운 날씨입니다. 연교차가 적고 화창한 대신 햇빛비치면 덥고 구름가리면 엄청 추워요(반팔 반바지 입으면 얼어죽음) 더워도 습기가 없어서 거의 땀 안나니까 옷은 반팔반바지 기본에 바람막이나 따듯한 외투, 긴팔 꼭 들고가세요.

저는 이정도로 학교 가기전에 제가 다른 후기에서 보고 싶었던 내용들을 적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태산인 것은 버클리 가기 전뿐이지, 미국 가면 그냥 다 재밌습니다. 여행계획도 저는 미국 와서 놀러가기 1-2주전에 짚는데, 솔직히 충분합니다. 주말 여행 계획도 충분합니다. 가이드북에 1년 전부터 예약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1주일 전이면 충분합니다(물론 예약이 1주일 전이고, 찾아보고 알아보는 거는 한 2-3주 전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가시기 전에 걱정될 것 같은 점들만 이렇게 적었고, 나머지는 직접 가서서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Summer session 되세요.